

한국 대학 캠퍼스 풍경에 획기적 변화 선도한 지하개발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7

캠퍼스 지하개발의 효시: 중앙광장과 하나스퀘어

지난 호에 서술했듯, 안암캠퍼스의 인문사회계에 중앙광장을 조성한 바는 2000년대 고려대학교의 건축풍경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사안으로 여길 만하다. 공사 전후로 다양한 논란을 야기했지만 캠퍼스 중앙의 외부 공간을 시대의 조류에 맞게 성공적으로 재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중앙광장이 완공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연계 지역에 유사한 성격의 하나스퀘어 프로젝트도 뒤따랐는데, 이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 지하개발의 선도적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고려대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앙광장(1999~2002)

1938년 건설돼 동양 최대의 위용을 자랑했던 대운동장은 그동안 고대생들의 체육활동과 학생운동의 중심 터전으로서 특출한 역할을 해왔다. 비움의 공간이 갖는 다목적의 융통성은 한국의 마당과 그 성격을 공유했으며 캠퍼스 전체에 여백의 미학마저도 던지 시 내포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의 잔재로 비쳐질 여지 역시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캠퍼스에 기증되는 공간부족의 문제는 대운동장 영역의 활용을 고심케 하는 실질적 인자였다.

학교 당국은 2005년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대운동장의 지하 공간 개발과 지상 광장 조성을 추진한다. 여러 찬반 논란을 뒤로하고 1999년 착수된 중앙광장 프로젝트는 2년 반여에 걸친 공사로 2002년 3월 마무리됐다. 지상 1층은 중심축 상의 분수를 중심으로 잔디밭, 나무, 벤치 등으로 조경했고, 지

하 1층은 약 900㎡의 공간에 행정시설, 학생 편의시설, 도서관 등을 뒀으며, 지하 2~3층은 약 1000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개발했다. 이로 인해 공간 문제가 크게 해소됨과 동시에, 지상은 자동차가 제한된 보행자 중심의 교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특히 지상의 공간이 보다 친근한 공원으로 변모한 것은 (디자인에 일부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21세기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라하겠다. 중앙광장 개발 이전에는 대운동장과 본관의 큰 고저차로 인해 캠퍼스에 공간적 위계가 분명했다. 더욱이 교문을 들어서면 대운동장 영역을 둘러싸며 식재된 수목으로 인해 본관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학교의 중심인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운동장 옆을 빙 둘러 우회하며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정도(正道)였다. 그러나 이제 고려대학교는 그 속살을 완전히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정문 밖에서도 직접 본관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됐고, 광장의 지면이 높아져 이전의 위계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권위를 벗어 버리고 중심축의 곧은길을 허락한 본관의 모습은 되레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학교가 몸과 마음을 열었더니 이 공간은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처로서도 기능하게 됐다. 지역사회에 개방된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모습은 2004년의 '담장개방녹화사업'으로 더 탄력을 받는다.

중앙광장의 설계는 한길종합건축과 신화건설링에서 맡았으며, 2002년 서울특별시 '올해의 조경상'을 수상했다. 앞선 서울처럼



모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2002년에 준공된 본관 앞 중앙광장. 기존 대운동장을 개발해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공간엔 행정 및 학생 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 사진은 2008년 개교기념일의 중앙광장. 위계를 벗어 버린 친근한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중앙광장의 선례를 따라 2006년 준공된 하나스퀘어는 지상 공원과 지하 3개 층의 직사각형 공간으로 개발됐다. 직선의 기하학적 규율이 엄정한 하나스퀘어는 완전히 개방된 본관 앞의 중앙광장과 대비된다.

중앙광장 개발은 자연계의 하나스퀘어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다른 여러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프랑스의 세계적 건축가도 미니크 페로가 설계해 2008년 완공한 이화여대의 캠퍼스복합단지(ECC)가 대표적 사례다.

자연계 동선의 핵심 축 하나스퀘어(2005~06)

하나스퀘어는 중앙광장의 선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캠퍼스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지상은 녹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당 대지는 과학도서관, 산학관, 생명과학대학(서관) 등으로 둘러싸인 50m×200m의 기다란 공간이었다. 설계자로 선정된 삼우종합건축과 에이스종합건축은 이곳을 지상의 공원과 지하세 개 층의 직사각형 공간으로 새로이 형상화한다. 지하 2~3층에는 자동차 530대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뒀고, 지하 1층은 강의실, 열람실, 다목적 아트리에에 더해 서점, 피트니스센터, 패스트

푸드점, 커피숍, 편의점 등의 근린시설에도 공간을 대폭 할애했다. 특히 중앙 라운지에 그랜드피아노를 두고 자유로이 학생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스퀘어의 지하 1층은 단지 그 공간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연계 캠퍼스 전체 동선의 핵심 축이다. 안암병원 맞은편의 주출입구로 진입한 보행자는 선큰가든(sunken garden)의 외부계단을 통해 지하층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과학도서관의 지하 편의시설로도 이르게 된다. 그리고 반대편 산학관 쪽의 선큰가든은 동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하층에 도입된 외부 정원으로서도 역할 하는데, 이곳의 자연채광은 주변의 지하 영역을 지상과 닮은 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지상에서 본 하나스퀘어는 동쪽 주출입구 쪽의 사각형 유리 상자와 산학관 측에 사선으로 돌출된 유리 매스가 초록의 잔디밭 위로 두드러진다. 잔디밭과 화단 사이로 쪽 뻗은 직선 보행로는 기하학적 규율이 엄정한 까닭에,

완전히 개방된 본관 앞의 중앙광장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강력한 직선 축은 지하 1층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전체 공간을 지배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도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지상의 보행로를 따라 식재된 수목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높은 키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지하 아트리에의 전면 천창이 유발하는 하절기의 온실효과에 기인한다. 하지만 2006년 8월 준공한 하나스퀘어는 이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서울특별시건축상 비주거부문 본상 등을 수여받음으로써 디자인의 참신함을 입증했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모교가 지하개발을 통해 조성한 중앙광장과 하나스퀘어는 2000년대 대학 캠퍼스 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사진은 이화여대가 모교 중앙광장을 벤치마킹해 2008년 준공한 캠퍼스복합단지.